

백수 양응수의 삶에 대한 가치 의식

- 그의 한시를 중심으로

이상봉*

차례

1. 들어가는 말
2. 경전의 내용에 충실한 자세: 경전의 복응(服膺)
3.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음: 천리의 순응을 추구
4. 나오는 말

| 국문초록 |

기존의 연구는 양응수의 독서법이나 그가 스승의 상을 당해 심상 1년을 실천했던 사실, 그리고 그가 화담학에 대해 가졌던 인식 등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의 독서법이나 그가 남긴 <축장일기> 속 내용, 그리고 화담학에 대한 그의 견해는 모두 그가 가졌던 삶과 학문에 대한 인식이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능하게 했던 그의 사상적 기반을 그가 남긴 한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양응수는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할 만큼 학자적 성품을 갖추고 있었고, 이러한 그의 성향은 많지 않은 그의 한시작품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가 남긴 한시작품의 주요 주제 중에는 경전의 내용에 충실할 것을 노래한 것이 많았는데, 특히 말로만 인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학』 등의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몸소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고 공평하다.'는 『서경』과 『예기』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자신의 운명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가짐을 그의 한시에서 표현하기도 했고, 이런 마음가짐은 '하늘과 사람은 원래 하나'라는 『주역』·『예기』·『심경』 등의 내용으로 발전되어 그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4단계 BK21 연구팀 연수연구원

의 한시에서 노래되기도 했다.

양응수는 경전에서 말하는 ‘천무사(天無私)·‘천인일야(天人一也)’의 가르침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인욕’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그의 한시 속에서 서도 인심과 도심이 돌이 아닌 것을 실현하기 위해 인욕을 제거해야 된다고 노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현의 경지를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성리학에 몰두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를 수양하고 절제해왔지만 여전히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만년의 그는 자신의 인욕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늘이 준 초심만은 잃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내용의 시를 남기기도 했다.

핵심어 : 양응수, 한시, 가치관, 경전, 실천, 무욕, 공정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18세기 문인 백수(白水) 양응수(楊應秀)(1700~1767)가 남긴 한시를 통해 그가 가졌던 삶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을해옥사 등으로 어수선했던 18세기 전후에 활동했던 호남 문인들이 어떤 마음자세를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호남 문인들의 문집을 살펴보던 중 만나게 된 양응수의 한시는 어지럽던 사회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사색의 깊이가 탁월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 보게 되었다.

연보에 따르면 양응수는 1700년 11월 5일에 남원부 서림리에서 태어나 13세부터 17세까지 권집(1666~1704)에게서 배웠고 38세에 한천 이재(1680~1746)를 사사했으며 일찍이 벼슬에 뜻을 접고 성리학에 전념했다고 알려져 있다.¹⁾ 그에 대한 선행연구는 석사 논문 1편·소논문 5편이 있는데, 현재까지 그의 한

1) 양응수, <백수선생연보>, 『백수집』,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13쪽. “三年癸卯(先生二十四歲), 先生雅不喜舉子業, 特爲父兄所教勸, 勉勉從事矣. 嘗赴解圍, 雨霑失容, 自是恥不復應舉, 遂專意性理之學.”

시에 대한 연구는 없다.²⁾

선행연구에서 김오봉은 양응수에 대해 “백수는 자신의 뜻을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 보다는 인간의 참 뜻을 알고 성인의 학과 성인의 도를 구하는데 두고 오로지 일생을 학문과 후진교육에 전념하였다.”³⁾고 했는데, 이는 일찍이 벼슬에 대한 뜻을 접고 학문에 열중했다는 행장의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평가라 할 수 있다.

김윤정은 “양응수는 심상의 원칙을 중시했으며, 이러한 사복(師服)기간 동안 호남 사족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한천의 문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⁴⁾ 또한 김윤정은 “예설논쟁에서 양응수는 사설(師說)에 대한 일방적인 추숭이 아닌 비판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스승의 예설이라도 의리에 어긋날 때는 반드시 수정해야 하고, 그것이 ‘사기종인(舍己從人)’하는 선생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⁵⁾고 했는데, 이는 권위에 휘둘리기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시했던 그의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응수의 유연한 사고는 박수밀이 양응수의 독서법에 관한 논문에서 “그는 성리학 전통의 독서론을 계승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열린 독서 태도를

- 2) 양응수와 관련된 학위논문으로는 김오봉의 석사학위논문(『白水 양응수의 독서론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이 있고, 소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김윤정, 「18세기 사복(師服)의 성격과 실제—양응수의 <축장일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3집, 한국국학진흥원, 2013.; 김윤정, 「백수 양응수의 「사례편람변의」 연구」, 『규장각』 제44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 박수밀, 「18세기 양응수의 독서법에 나타난 독서 양상과 그 의미」, 『국제어문』 42집, 국제어문학회, 2008.; 조성산, 「18세기 노론 지식인 양응수의 화담학 인식」, 『민족문화연구』 77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조성산, 「18세기 영·호남 유학의 학맥과 학풍」, 『국학연구』 9집, 한국국학진흥원, 2006. 그의 정민 교수가 지은 『오직 독서뿐』(김영사, 2013)이라는 책에 양응수의 독서법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 3) 김오봉, 「백수 양응수의 독서론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87쪽.
- 4) 김윤정, 「18세기 사복의 성격과 실제—양응수의 <축장일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3집, 한국국학진흥원, 2013, 492~494쪽.
- 5) 김윤정, 「백수 양응수의 <사례편람변의> 연구」, 『규장각』 제44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 61쪽.

수용했다. 입어서는 안 될 책이란 없다고 하였으며 경전의 풀이가 다르더라도 해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수용했다.”⁶⁾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필자는 양응수의 『백수집』에 담긴 91제의 한시를 살펴보면 그가 가졌던 삶과 학문에 대한 견해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백수집』은 30권 17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응수의 학문적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백수집』의 구성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1~5권은 김원행(1702~1772)·송명흡(1705~1768) 등 여러 인물들과 나눈 서(書)를 실고 있고, 권6은 <비은설>·<기설>·<신설> 등 12편의 설(說)을 실고 있으며, 권7~8은 변과 차의, 권9~12는 잡저를 실고 있다.

권13~14는 서(序)(10편)·기(8편)·제발(21편)·잠(1편)·(1편)·고문(4편)·축문(1편)·제문(21편)·애사(1편)를 실고 있고, 권15는 행장(14편)과 전(4편)이며 권16은 시(91제)이고 권17은 <축장일기>다. 양응수는 스승인 한천 이재가 졸하자 김후웅과 함께 분곡(奔哭)한 뒤 심상 1년을 입었는데, 이 일기는 1746년 12월 20일부터 1747년 12월 1일까지의 심상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권18은 부록으로 홍석주(1774~1842)가 지은 지계사 상량문·유언집이 지은 행장 등이 실려 있고, 권19~24는 외집으로 사서와 『예기』 곡례편을 대상으로 강설한 것을 문도의 질문과 저자의 답변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권25~28은 별집이다. 권25는 <위학대요상>, 권26은 <위학대요하>, 권27은 <중주편상>, 권28은 <중주편하>이다. <위학대요>는 성인이 사람을 가르치는 핵심적인 말을 수집한 것으로 『성리대전』의 체재를 따랐다. <중주편>에서는 주희의 입론을 여러 전적에서 가려 뽑은 뒤 각각의 조목 아래에 제가의 그릇된 학설을 논열하였고 주희의 언행 중에서 위학이나 수제치평(修齊治平)과 긴밀히 관련된 내용을 초록하였다.

권29~30은 부록이다. 권29에는 양종갑·양종을·박신극·이기경(1713~1787) 등이 지은 제문과 만사가 실려 있고, 권30에는 이재가 양응수에게 써 준 유첩

6) 박수밀, 「18세기 양응수의 독서법에 나타난 독서 양상과 그 의미」, 『국제어문』 42집, 국제어문학회, 2008, 155쪽.

과 송명흠·김원행·송문상 등이 보낸 서독(書牘) 등과 종유록·문생록이 수록되어 있다.⁷⁾

『백수집』의 해제에서 알 수 있듯, 양응수는 성리학을 중주로 한 경학에 침잠해 있었고 스승의 사후에는 몸소 1년간 심상을 행할 만큼 실천을 중요하게 여긴 인물이었다. 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한시는 경학에 대한 그의 열정만큼이나 깊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세한 내용을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2. 경전의 내용에 충실한 자세: 경전의 복옹(服膺)

과거시험의 합격은 양반이라면 누구나 욕심내는 권력과 명예의 상징이다. 대부분의 양반자제들은 과거시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평생 동안 과거장을 들락거리며 세월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응수는 그 어렵다는 과거시험의 유혹을 일찌감치 물리치고 학문의 길에 매진했다.

이는 그가 가진 성품 탓도 있었겠지만 “과거가 사람을 엮매는 것이 적지 않다.”는 주자의 가르침⁸⁾과 일찍 부모님을 여윈 탓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그의 현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실부모로 인해 효도를 하지 못한 아픔 때문에 양응수는 늙어서도 밥상에 두 가지 이상의 육류를 올리지 않았고 비단 바지저고리를 입지 않았는데⁹⁾, 이런 행동들은 그가 성리학을 중주로 한 경학에 깊이 경도되었기 때문에

7) 이상 『백수집』의 해제는 한국고전종합DB의 것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8) 양응수, <과거지학>, <위학대요하>, 『백수선생문집』 권26, 한국문집총간 속78, 한국고전번역원, 2009, 55~56쪽. “科擧累人不淺, 人多爲此所奪, 但有父母在, 仰事俯育, 不得不資於此, 故不可不勉爾, 其實甚奪人志.” 양응수는 과거시험에 대한 주자의 가르침을 『성리대전』에서 발췌해서 <위학대요>라는 초록집에 실고 있다.

9) 양응수, <행장[대재유언집찬]>, 『백수선생문집』 권18,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420쪽. “每以不克終養爲至痛, 至老不食重肉, 亦不帛襦袴, 以自異於平人.”

가능한 일로 보인다. 아래의 시에서 그의 이러한 면모를 확인해 보자.

<병중에 스스로 지은 찬>

성정은 백이에 가깝고
 도학은 주자를 종주로 삼았네.
 마음을 보존하는 것은 시종일관 두려운 일이니
 일마다 일일이 물어본다네.

<病中自贊>

性情近伯夷
 道學宗朱子
 存心終始懼
 處事一問字¹⁰⁾

찬은 어떤 사람의 행적을 기리는 글이다. 그런데 양응수는 병중에 스스로를 기리는 글을 지었다. 왜 병중에 자찬의 글을 지었을까? 그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재야의 선비였다. 주변의 몇몇 사우와 지인들을 제외하고 자신을 알아 줄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병이 들고 말았다. 아마도 가벼운 질환이 아니라 꽤나 심각한 병이었을 것이다.

병든 중에 ‘이대로 세상을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이 떠올랐을 수도 있다. 돌이켜보니 자신의 성품은 백이와 같이 청렴했다고 할 수 있었고 학문은 주자의 도통을 종주로 삼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감히 공자와 주자의 적자(嫡子)라고 자부할 순 없지만, 적어도 공자와 주자의 가르침을 추구하며 살아왔다고 말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존심양성(存心養性)¹¹⁾의 실현은 성인의 경지이니 함부로 자신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늘 두려워한다고 말하며, 일마다 일일이 물어보면서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고¹²⁾ 자술하고 있다. 오직 혼자 힘으로 이겨내야 하는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

10) 양응수, <병중자찬> 제1수, 『백수선생문집』 권16,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378쪽.

11) 『맹자집주』 <진심장구상>,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한국고전종합DB 참고)

12) 『논어』 <팔일>, “子入大廟, 每事問, 或曰: ‘孰謂鄴人之子知禮乎? 入大廟, 每事問.’ 子聞之, 曰: ‘是禮也.’” (한국고전종합DB 참고)

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자찬시를 지은 양응수의 간절함을 읽을 수 있다.

양응수의 독서법에 대해서만 두 건의 논문과 한 건의 저서가 있을 만큼¹³⁾, 그는 독서와 독서법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 학문의 길은 이치를 연구하는 것 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이치를 연구하는 것의 요체는 반드시 독서에 있다.¹⁴⁾
- ② 독서는 종이 위에서만 뜻과 이치를 찾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서 생각해야 한다.¹⁵⁾
- ③ 독서는 도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책을 읽어서 어디에 쓰겠는가?¹⁶⁾

양응수가 편집한 <위학대요>에 실려 있는 위의 글들은 모두 주자의 말을 초록한 것이다.¹⁷⁾ 엄밀히 말하자면 양응수는 주자의 독서법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주자의 가르침 중 이러한 구절들을 따로 초록해두고 자주 마음에 새겼다는 점이다. 또한 그는 독서의 차례에 있어 『소학』을 가장 앞에 두고 있었는데¹⁸⁾, 독서와 학문에 대한 이러한

13) 김오봉, 「백수 양응수의 독서론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박수필, 「18세기 양응수의 독서법에 나타난 독서 양상과 그 의미」, 『국제어문』 42집, 국제어문학회, 2008 ; 정민, 『오직 독서뿐』, 김영사, 2013.

14) 양응수, <학>, <위학대요[상]>, 『백수선생문집』 권25, 한국문집총간 속78, 한국고전번역원, 2009, 18쪽. “爲學之道, 莫先於窮理, 窮理之要, 必在於讀書.”

15) 양응수, <독서법>, <위학대요[하]>, 『백수선생문집』 권26, 한국문집총간 속 78, 한국고전번역원, 2009, 47쪽. “讀書, 不可只專就紙上求義理. 須反來就自家身上推究.”

16) 양응수, <독서법>, <위학대요[하]>, 『백수선생문집』 권26, 한국문집총간 속78, 한국고전번역원, 2009, 48쪽. “讀書, 將以求道. 不然, 讀作何用?”

17) ①은 『주자독서법』, 권1에 나오는 말을 초록한 것이고, ②는 『주자독서법』, 권2에 나오는 말을 초록한 것이며, ③은 『주자어류』, 권11에 나오는 말을 초록한 것임. 문연각사고전서 전자판 참고.

18) 양응수, <향교강규>, <강회의절>, 『백수선생문집』 권24,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521쪽. “讀書次第, 先小學, 次大學兼或問, 次論語, 次孟子, 次中庸, 次詩經, 次禮經, 次書經, 次易經, 次春秋, 而心經, 近思錄, 家禮, 朱子大全諸書, 則或先或後, 循環兼讀.”

그의 견해를 아래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대의 폐단을 탄식하다.>

<歎時弊>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는 것이 참된 학문 아니고	說心說性非眞學
『소학』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진짜 공부라네.	小學躬行是實功
안타깝네, 노장과 불교 같은 이단이며,	可惜異端如老佛
허무나 적멸은 모두 헛된 것이니.	虛無寂滅總成空 ¹⁹⁾

말로만 ‘마음’과 ‘성품’을 언급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고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소학』의 여러 항목들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부라고 말하고 있다. <탄시폐>라는 이 시의 제목을 통해서 당시 많은 학자들이 ‘실천’이 아닌 ‘말’로만 학문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한 그가 노장과 불교에 대해서는 ‘허무’하고 ‘적멸’해서 모두 ‘헛되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노장과 불교에 대한 그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평이하게 해서 익숙하게 읽고 정밀하게 생각해서 참된 도리를 보고 획득할 수 있다면 성인이 무슨 까닭으로 이런 간편한 공부 방법을 버려두고 박학·심문·신사·명변과 같은 많은 말들을 가지고 지루하게 설득했겠습니까? 이단 중에 이치에 가까운 것은 노장과 불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노장과 불교의 마음을 평안히 하고 기운을 평이하게 하며 정밀하게 생각하고 도리를 얻는다는 것은 허무적멸이란 네 글자에 불과한데 이들 무리들이 참된 뜻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중략) 이를 통해 보면 배우기를 어찌 넓게 하지 않을 것이며 문기를 어찌 자세히 하지 않을 것이며 생각하기를 어찌 삼가지 않을 것이며 분별하기를 어찌 분명하게 하지 않겠습니까?²⁰⁾

19) 양응수, <탄시폐>, 『백수선생문집』 권16,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381쪽.

20) 양응수, <답이사이(견)>, 『백수선생문집』 권4,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111~112쪽. “夫人皆可以虛心易氣，熟讀精思，而見得眞箇道理也，則聖人何故舍此簡便工夫，而必以博學審問，愼思明辨許多句語，說得支離乎？異端之近理者，莫若老佛。而老佛之平心易

이건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양응수는 노장과 불교의 사상을 ‘허무적멸’이란 네 글자로 요약하며 그 효용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실천을 강조하는 양응수의 입장에서 ‘허무적멸’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 덕목인지 애매모호 했을 것이다. 이어서 『중용』의 박학·심문·신사·명변이야말로 참된 학문의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박학·심문·신사·명변은 허무적멸에 비해 구체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덕목임이 분명하다.

노장과 불교에 대한 그의 이해는 논외로 하더라도 인용한 시와 편지의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학문의 참뜻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유가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말로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이다.

실천을 강조한 그의 태도는 아래의 글에서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배움이란 사람에게 있어 큰일이다. 그래서 <열명>에서는 ‘옛 가르침을 배우면 얻는 것이 있다.’고 했고, <주관>에는 ‘배우지 않으면 담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으며, 제갈무후는 ‘학문이 아니면 재능을 넓힐 수 없다.’라고 했으니 모두 사람이 배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배움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처럼 큰일인데, 사람이 배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배움이라는 것도 옳고 그른 구별이 있다. 성현의 말을 음미하고 의리의 마땅함을 추구하고 고금의 변화를 살펴서 득실의 기미를 증험하여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보며 그 실체를 실천하는 사람은 배움이 올바른 것이다. 여러 가지 책을 보고 기억하고 외워 잡다하고 넓은 것을 고상하게 여기고, 나누고 꾸미고 붙여서 화려한 것을 뛰어나다고 여기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서는 실제로 둘 만한 일이 없으면 배움이 어긋난 것이다.²¹⁾

氣, 精思而得之者, 不過虛無寂滅四字, 若此輩謂之見得真意可乎? (중략) 由是觀之, 則學如何不博, 問如何不審, 思如何不慎, 辨如何不明?”

- 21) 양응수, <증장수재운해서>, 『백수선생문집』 권13,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296쪽. “學之於人大矣, 故說命曰: ‘學于古訓, 乃有獲’ 周官曰: ‘不學牆面’ 諸葛武侯曰: ‘非學無以廣才’ 皆言人之不可不學也, 學之於人, 若是其大矣, 人可不學乎? 然所謂學, 亦有邪正之別焉. 味聖賢之言, 以求義理之當, 察古今之變, 以驗得失之機, 而必返之身, 以踐其實者, 學之正也. 涉獵記誦而以雜博相高, 割裂裝綴而以華靡相勝, 返之身無實措之事, 則學之邪也.”

『서경』의 <열명>과 <주관>에 기록된 배움에 대한 말과 학문에 대해 제갈량(181~234)이 남긴 말을 인용하면서 양응수는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배움’에 있어서도 양응수는 옳고 그름의 구별이 있다고 보았다. 즉 성현의 말을 음미하고 의리를 마땅함을 추구하며 그 실체를 실천하는 사람은 옳게 배우는 것이고, 여러 가지 책을 보고 기억하고 외우지만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 실제로 둘 만한 일이 없으면 배움이 어긋났다는 것이다. 이 또한 실천을 강조한 그의 성향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실천을 강조하는 그의 태도는 선현의 경지를 스스로 체득하려는 마음자세로 확장되었는데, 아래 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천에서 돌아올 때, 선생의 손자 중익(이름은 퇴)이 시를 주기에 그 운에 차 운했다.>

<自寒泉歸時, 先生孫仲益(名未)有詩, 追次其韻>

자사와 증자를 내가 어찌 두려워할까?	子思曾子吾何畏
그도 대장부고 나도 그런 것을.	彼亦丈夫我亦然
모든 성현이 ‘마음 심’ 한 글자를 서로 전했으니	千聖相傳心一字
요임금 때부터 밝았던 달이 한천을 비추네.	堯天明月照寒泉 ²²⁾

양응수는 유가의 선현인 자사와 증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그도 대장부고 나도 그렇다.”고 자신감을 드러낸다. 비록 시간과 장소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사와 증자도 한 시대를 살아갔던 대장부였고 자신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장부니, 내가 지금의 삶에서 인·의·충·서 등을 착실히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자사와 증자에게 뒤쳐질 것이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사람은 모두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자의 말을 <위학대요>에 초록해 두기도 한²³⁾ 양응수는

22) 양응수, <자한천귀시, 선생손중익(명퇴) 유시, 추차기운> 제7수, 『백수선생문집』 권16,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383쪽.

23) 양응수, <학>, <위학대요[상]>, 『백수선생문집』 권25, 한국문집총간 속78, 한국고전번역원, 2009, 13쪽. “人皆可以爲聖人, 而君子之學, 必至於聖人而後已, 不至於聖人而已者, 皆自

주자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신의 시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했다는 심법²⁴⁾을 거론하며 이 심법이 자신의 스승인 한천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스승인 한천 이재와 자기 자신은 요임금 때부터 이어진 유가의 정맥을 잇고 있다고 자부심 넘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양응수는 “명도선생이 많은 말씀 없으셨던 건, 주렴계의 태극도 설에 처음과 끝이 다 있기 때문이지. 불쌍하구나, 뒤 세대의 군자들이여, 남의 말만 한편이나 외고 있으니.”²⁵⁾라며 핵심을 벗어난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당대 선비들을 비판하기도 했고, “우리의 도는 의와 인에 불과할 뿐이나, 돈독히 실천하면 인륜을 다할 수 있으리. 소용의 역학이 가장 어려우니, 어떡해야 선견지명이 성현의 정신에 이를까?”²⁶⁾라며 유가의 대요는 인과 의라고 말하면서 성현의 선견지명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역학의 이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3.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음: 천리의 순응을 추구

경전의 내용에 충실하며 그 내용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양응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습능력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는데, 이 때 『주자어류』에 제시되어 있던 독서법은 그에게 학습의 지침이 되었다.

棄也.”

24) 『서경』 <대우모> “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한국고전종합DB 참고)

25) 양응수, <감홍> 제2수, 『백수선생문집』 권16,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382쪽. “明道不須多說話，濂翁圖說始終全。可憐後世諸君子，傳誦人言至萬編”

26) 양응수, <감홍> 제7수, 『백수선생문집』 권16,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382~383쪽. “吾道不過義與仁，敦行庶可盡人倫。堯夫易學最難及，先見如何到聖神。”

나는 나면서부터 정신력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좋지 않았는데, 늙어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보는 책은 비록 많았지만 보자마자 잊으니 넓게 보아도 이익은 없었고 그저 정신만 피폐해질 뿐이라서 늘 이것이 걱정이었는데 어찌 할 방법을 알지 못했었다. 최근에 『주자어류』를 읽었는데 독서하는 방법을 논하며 “정신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그저 말뜻만 가지고 간략하게 받아들여라. 중년 이후의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으니, 다만 조금씩 찾아 읽어도 절로 그 도리가 드러날 것이다.”라 하고, 또 “나이가 만년에 이르면 중요한 것만 가려서 공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그 가르침을 삼가 좇아 성현이 사람들을 가르치신 중요한 말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위학대요>라고 이름 붙여, 늘 찾아보고 배울 수 있게 했다.²⁷⁾

<위학대요>는 그의 문집인 『백수집』 권25~26에 각각 <위학대요> 상·하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위학대요> 상에는 인륜과 학에 관련된 경전이나 성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위학대요> 하에는 독서법·과거지학·논시·논문·이기·명성·심성정의지·명덕·인심도심·총서·성·천지와 관련된 경전과 성현의 말씀이 초록되어 있는데, 위에 인용한 <위학대요> 서문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성현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려는 양응수의 간절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경전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고 공평하다.’라는 내용은 『서경』과 『예기』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²⁸⁾ 양응수는 자신의 시에서 이 가

27) 양응수, <위학대요서>, 『백수선생문집』 권13,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291~292쪽. “余生來稟得精魄太不足, 自少少記性, 而到老益甚. 看書雖多, 隨即忘却, 則博文無益, 徒弊精神而已, 常以是爲患, 而不知所以用力之方. 近讀朱子語類, 其論讀書之法曰: “精神短者, 但以詞義簡易涵養. 中年以後之人, 讀書不要多, 只少少玩索, 自見道理.” 又曰: “年齒向晚, 却須擇要用功.” 於是謹遵依其訓, 乃彙集聖賢教人之要語, 作爲一卷書, 而名之曰爲學大要, 以爲常日玩索涵養之地.”

28) 『서경』 <군석>에 “하늘은 공평해서 하늘과 통하는 사람을 장수하게 한다. 그래서 은나라를 보존해서 다스리게 했다.[天壽平格, 保乂有殷]”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 대해 여조겸(1137~1181)은 “평탄해서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쭈이라 하고, 천·지·인을 관통해서 간격이 없는 것을 격(格)이라고 한다.[坦然無私之謂平也, 通徹三極而無間之謂格也.]”고 주석했다. 또 『예기』 <공자한거>에는 “하늘은 사사로이 덜어 주는 법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실어 주는 법이 없으며,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추어 주는 법이 없다.[天無私覆, 地無私載, 日

르침을 유독 자주 강조했다.

<흉년에 스스로 경계하다.>

<荒年自警>

하늘은 사사로운 뜻이 없으니 무엇을 원망할까?	天無私意則何怨
사람은 어진이가 드무니 닳할 것도 없지.	人鮮能仁不足尤
내 운명 원래부터 정해진 것 있으니	吾命元來有所制
삶과 죽음, 영광과 치욕 근심할 것 없네.	死生榮辱不須憂 ²⁹⁾

하늘은 원래 사사로운 뜻을 갖고 있지 않으니 비록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하늘을 원망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경전의 가르침과 같이 모든 것은 이치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므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양응수는 깊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경우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진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 그래서 양응수는 사람이 어질지 못한 언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닳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가 가진 愆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3:4구에서는 운명이라는 것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니 삶과 죽음이나 영광과 치욕을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명제의 진위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짊어져야 할 몫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운명이란 정해져 있으니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하지만 양응수의 경우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명제 아래에서 사생영욕에 초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 명

月無私照”고 했다. (한국고전종합DB 참고)
 29) 양응수, <황년자경>, 『백수선생문집』 권16,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377~378쪽.

제를 통해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유로워진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절선생 운에 차운하다.>

<次康節先生韻>

어짚이란 오직 사사로운 뜻을 없애는 데 있으니
하늘의 도는 원래부터 공평했다네.
만물은 애초에 치우친 곳 없었는데
때에 따라 각자 절로 그렇게 되었네.
겨울 수면의 하얀 얼음을 보고
봄 산머리의 활짝 핀 꽃을 보라.
이 이치를 사람이 체득할 수 있다면
학문을 이루지 못할까 어찌 걱정하겠나?

爲仁惟在去私意
天道元來只是公
賦物初無偏着處
隨時各有自然中
冬看水面堅凝白
春見山頭滿發紅
此理人能眞體得
何憂學問不成功³⁰⁾

‘어짚이란 오직 사사로운 뜻을 없애는 데 있으니’라는 말은 『논어』 <안연> 편에 나오는 ‘극기복례’의 일화³¹⁾에서 가져온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욕심을 제거한다면 하늘처럼 사사로움이 없게 될 것이니 그제야 지극히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문이란 무엇일까? 학문의 성취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세속적으로 본다면 과거공부에 집중해서 대과에 급제하는 것을 학문의 성취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양응수의 경우, 과거공부에 대한 생각은 이미 20대에 접었고 이후 성리학을 종주로 하는 경학에 침잠해왔다.

그에게 있어 학문은 성리학을 투철하게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겨울에 수면이 하얗게 엉기고 봄이 되어 산머리에 붉은 꽃이 활짝 피는 것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운행원리를 통찰할 수 있다면 자신이 추구하는 성리학이 일정한 경

30) 양응수, <차강절선생운>, 『백수선생문집』 권16,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379쪽.

31) 『논어』 <안연> 1장.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한국고전종합DB 참고)

지에 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흥취가 일어>

마음속에 담긴 두 기운을 알려면
 마음 일어난 곳에서 공과 사를 분별해야지.
 공정한 마음은 원래 양신에서 나오고
 사사로운 뜻은 혈기를 따라 치달리지.
 혈기를 따를 때면 잃는 것이 많지만
 양신을 거느려 가면 절로 위험 없어지네.
 유정유일 서로 전한 곳을 헤아려보면
 앞선 성현의 마음을 알 수 있으리.

<感興>

欲識心中含二氣
 須從發處辨公私
 公心本自陽神出
 私意却從血氣馳
 血氣從時多有失
 陽神率去自無危
 丁寧精一相傳地
 先聖之心即可知³²⁾

양응수는 공과 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마음속의 두 기운[陰陽]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는 공정한 마음은 양의 기운에서 나오고 사사로운 뜻은 음의 기운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음양이 존재하는 지, 이 음양이 공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양응수는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면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양의 기운, 즉 공정한 마음을 거느리고 나아가면 위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이러한 생각은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야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을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한 『서경』의 말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사로움이 없는 하늘의 마음을 본받아 공평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양응수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과 사람은 원래 하나’라는 내용의 시를 짓기도 했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라는 그의 견해는 『주역』·『예기』·『심경』 등의 주석서와 정자와 주자의 서적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데,³³⁾ 그의 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형상화 되고 있다.

32) 양응수, <감흥>, 『백수선생문집』 권16,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384쪽.

<속마음을 써본다.>

<述懷>

병·근심·가난·약함을 한스러워 하지 말아야 하니	疾憂貧弱不須恨
하늘과 땅의 넓은 은혜를 나 홀로 입고 있다네.	天地洪恩我獨蒙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곳을 볼 수 있다면	願得天人爲一處
가슴 속 즐거운 뜻은 절로 끝이 없겠지.	胸中樂意自無窮 ³⁴⁾

3·4구에서 양응수는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곳을 볼 수만 있다면 끝없이 즐거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 사사로움을 떨쳐버리고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것이니 즐거울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1·2구에서 병·근심·가난·약함에 시달리면서도 스스로 천지의 넓은 은혜를 홀로 입었다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양응수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맹자의 말³⁵⁾과 같이 하늘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병·근심·가난·약함도 하늘이 내려준 것이므로 달게 받아들여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흥취가 일어. 옥산의 옛 운을 사용하다.>

<感興. 用玉山舊韻>

텅 빈 선천은 끝이 없고	沖漠先天罔有垠
모두 섞여 한 몸 되어 티 없이 참되네.	渾然一體粹然眞
생생한 변화가 바로 『역』이고	生生變化斯爲易

33) 『주역집주』, 권13. “釋大有上九爻義, 天人一理, 故言天而卽言人. 天之所助者, 順也. 順則不悖于理, 是以天祐之人之所助者, 信也.”; 『예기집설』, 권110. “天人一道也. 聖人曲盡心知至於知天, 故能與天爲一.”; 『심경부주』, 권1 “有道有理, 天人一也. 更不分別浩然之氣, 乃吾氣也.”; 『이정유서』, 권2상. “有道有理, 天人一也. 更不分別浩然之氣, 乃吾氣也. 養而不害, 則塞乎天地, 一爲私心所蔽, 則歉然而餒, 知其小也.”; 『주자어류』, 권52. “程子曰: ‘天人一也. 更不分別浩然之氣, 乃吾氣也. 養而無害, 則塞乎天地, 一爲私意所蔽, 則歉然而餒, 却甚小也.’” (문연각사고전서 전자판 참고)

34) 양응수, <술회>, 『백수선생문집』 권16,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382쪽.

35) 『맹자』 <이루 상>, “天下有道, 小德役大德, 小賢役大賢, 天下無道, 小役大, 弱役強. 斯二者天也, 順天者存, 逆天者亡.” (한국고전종합DB 참고)

오묘하게 잘 아는 것이 바로 신이네.	妙妙良能卽是神
그 이치가 사람에게 주어지면 성이라 하고	其理賦人名曰性
마음을 보존하고 덕을 온전히 하는 것을 인이라 하지. 在心全德曰云仁	
하늘과 사람은 하나라서 원래 틈이 없으니	天人一也元無間
욕망을 이겨내고 인을 순수하게 하면 바로 성인이네. 克己純仁乃聖人 ³⁶⁾	

1구의 ‘충막’은 “텅 비고 조짐이 없을 적에 만물의 이치가 이미 빼곡히 갖추어져 있다.[冲漠無朕, 萬象森然已具.]”라고 한 『이정유서』의 말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³⁷⁾ ‘선천’은 소옹(1011~1077)의 선천역을 가리킨다.³⁸⁾

양응수는 마음과 덕을 보존하고 온전히 하는 것을 ‘仁’이라고 하면서 ‘하늘과 사람은 하나’라는 경전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하늘과 사람이 하나’라고 할 때 그 표본이 되는 성인이 되는 방법으로 ‘인욕을 이겨내고[克己]’ ‘仁을 순수하게[純仁]’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주역』과 『예기』에 제시되어 있고, 정자와 주자가 동의한 ‘하늘과 사람은 하나’라는 개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에게 존재하는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해야만 했다. 『논어』의 <안연> 1장에 등장하는 ‘극기복례’나 『중용』 제27장에 대한 주희의 주석 등에 언급된 내용³⁹⁾을 통해서도 전통적으로 유가에서는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양응수는 이러한 경전의 내용을 계승해서 아래와 같이 자신의 시에 담아내고 있다.

36) 양응수, <감흥, 용옥산구운>, 『백수선생문집』 권16,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380쪽.

37) 『이정유서』 권15. “冲漠無朕, 萬象森然已具. 未應不是先, 已應不是後, 如百尺木, 自根本至枝葉, 皆是一貫.” (문연각사고전서 전자판 참고.)

38) 소옹은 기존 통용되던 『주역』의 역학체계와는 별도로 하도와 선천복회팔괘도를 바탕으로 하는 역학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복회역 또는 선천역이라 했다.

39) 『중용장구』 제27장 주희의 주석. “不以一毫私意自蔽, 不以一毫私欲自累, 涵泳乎其所已知, 敦篤乎其所已能, 此皆存心之屬也.” (한국고전종합DB 참고.)

<자득한 내용을 읊다.>

<自得吟>

사람의 마음과 도의 마음은	人心與道心
알고 깨달으면 둘이 아니네.	知覺則非二
그것이 유래한 곳을 탐구해보면	究厥所從來
본래 근원은 다름이 있지만	本原各有異
사단과 칠정이	四端及七情
모두 이 마음에서 시작되었네.	俱是心之發
순수한 착함과 뒤섞임은	純善與駁雜
그 유래가 원래부터 구별되지만	其由亦自別
마음의 정으로 나아가서	須就心情上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精察其所以
하늘의 참됨과 사람의 욕망이	天真與人欲
두 경계로 아주 명확하게 나누어지네.	明辨兩界至
사람의 욕망은 반드시 제거하고	人欲必克去
하늘의 참됨을 공경히 지키고 머물면	天真敬守止
이것이 바로 대역 가운데	是乃大易中
‘음을 누르고 양을 돕는다.’는 뜻이다.	抑陰扶陽義
잠깐 사이에도 이것을 항상 하고	造次恒於斯
엎어지고 자빠져도 이와 같이 해서	顛沛必若是
잠시 쉴 때도 나태하지 않고	一息不容懈
죽은 다음에야 그만두어야 하네.	以待死後已
모든 성현들이 전한 심법이	千聖傳心法
그 요지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네.	其要不過此
참되게 알고 실제로 체득한 사람과	眞知實體者
이치를 연구해서 성품을 다한 사람이	窮理盡性人
오랫동안 순수하고 익숙히 한다면	久久純熟日
자연스레 성신의 경지에 도달하리라.	自然到聖神
나는 이 이치를	小子於是理
우연히 보고 터득해서	偶爾見得到
이미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데	既以自勉勵

동지들을 위해 알려주노라.

又爲同志譜⁴⁰⁾

양응수는 인심과 도심은 둘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의 욕망을 제거하고 하늘의 참됨을 공경히 지키고 머물라고 말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성현들의 심법이라는 것인데, 그가 이런 내용을 <자득음>이라는 제목 속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자득’이란 ‘스스로 터득했다.’는 말이다. 양응수는 위에 인용한 내용을 스스로 터득한 뒤, 이를 동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시를 썼다. 그가 자득했다는 경지는 성현의 경지까지는 아닐 것이고 ‘성현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했다.’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비록 외람되게 성현의 경지를 체득했다고 자처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성현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이 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병중에 느낀 바 있어>

<病裏有感>

삶과 죽음 그리고 귀신은 같은 이치일 뿐이니

生死鬼神只一理

살았다고 기뻐할 것도 죽는다고 슬플 것도 없네.

生無足喜死無悲

걱정할 것은 사람의 욕심을 없애기 어려워

所憂人欲終難滅

하늘이 준 처음 마음을 혹시라도 속이게 될까 두렵다는 것. 天賦初心恐或欺⁴¹⁾

‘삶과 죽음 그리고 귀신은 같은 이치일 뿐’이라는 것은 『근사록집해』에서 주자가 “生死始終, 皆一理也.”라고 한 것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⁴²⁾ 주자의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였던 양응수는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았던 주자의 견해를

40) 양응수, <자득음>, 『백수선생문집』 권16,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381쪽.

41) 양응수, <병리유감>, 『백수선생문집』 권16,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382쪽.

42) 『근사록집해』 권1, “消極而生, 無有間斷, 物極必返, 理之自然. 生死始終, 皆一理也.” (한국고전종합DB 참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혹시라도 인욕에 휩싸여서 하늘이 내린 초심을 어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였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다.’는 경전의 가르침과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라는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면의 욕심을 제거해야 했다. 그런데 사람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짧은 순간에도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한 순간이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 욕망에 휘둘릴 가능성이 늘 존재했다. 그래서 양응수는 그런 짧은 순간에라도 혹시나 초심을 잃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경계하고 다른 이에게도 경계를 주다.>

<自警警人>

우리들이 경전을 공부한 지 이제 몇 년인가?

吾輩說經今幾年

담대하게⁴³⁾ 성인과 현인을 추구했다네.

嚶嚶希聖或希賢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기 어렵겠지만

雖然克己終難得

스스로를 속여서 죄가 하늘에 닿게 하지는 말자.

莫是自欺罪貫天⁴⁴⁾

돌이켜보니 학문에 침잠한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다. 세속의 선비들처럼 과거 공부에 몰두하느라 심성수양을 게을리 하지도 않았고 젊은 시절부터 오직 성리학과 경전공부에 몰두해왔다. 그래서 양응수는 감히 담대하게 성인과 현인을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현의 경지라는 것이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한다고 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끝내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말자고 말한다. 이 시를 통해 평생 성리학을 바탕으로 심성수양에 몰두했던 한

43) ‘담대하게’라고 번역한 원문의 ‘嚶嚶’는 뜻이 크고 말이 큰 것을 가리킨다. 『맹자』, <진심하> “其志嚶嚶然曰：古之人古之人。”(한국고전종합DB 참고)

44) 양응수, <자경경인>, 『백수선생문집』 권16,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382쪽.

학자의 진솔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4. 나오는 말

기존의 연구는 양응수의 독서법이나 그가 스승의 상을 당해 심상 1년을 실천했던 사실, 그리고 그가 화담학에 대해 가졌던 인식 등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의 독서법이나 그가 남긴 <축장일기> 속 내용, 그리고 화담학에 대한 그의 견해는 모두 그가 가졌던 삶과 학문에 대한 인식이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능하게 했던 그의 사상적 기반을 그가 남긴 한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양응수는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할 만큼 학자적 성품을 갖추고 있었고, 이러한 그의 성향은 많지 않은 그의 한시작품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가 남긴 한시작품의 주요 주제 중에는 경전의 내용에 충실할 것을 노래한 것이 많았는데, 특히 말로만 인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학』 등의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몸소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고 공평하다.’는 『서경』과 『예기』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자신의 운명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가짐을 그의 한시에서 표현하기도 했고, 이런 마음가짐은 ‘하늘과 사람은 원래 하나’라는 『주역』·『예기』·『심경』 등의 내용으로 발전되어 그의 한시에서 노래되기도 했다.

양응수는 경전에서 말하는 ‘천무사(天無私)’, ‘천인일야(天人一也)’의 가르침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인욕’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그의 한시 속에서도 인심과 도심이 둘이 아닌 것을 실현하기 위해 인욕을 제거해야 된다고 노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현의 경지를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성리학에 몰두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를 수양하고 절제해왔

지만 여전히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만년의 그는 자신의 인욕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늘이 준 초심만은 잃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내용의 시를 남기기도 했다.

현대사회 뿐 만 아니라 양응수가 활동했던 18세기에도 입신양명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성공은 대부분의 선비들이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응수는 그러한 사회적 성취를 떠나 성리학이라는 학문의 길에 뛰어들어 심신의 수양과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삶을 살았다.

200년도 지난 지금에 와서 그의 삶을 관조해보면 사회적 성공에 욕심내지 않고 학문의 길을 선택한 양응수의 결정이 쉬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가족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양응수와 같이 욕심을 버리고 순리에 맞는 길을 걸었던 문인들의 삶과 그들의 글을 조명하는 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반조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문연각사고전서 전자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양응수, 『백수집』, 한국문집총간 속77, 한국고전번역원, 2009.

양응수, 『백수집』, 한국문집총간 속78, 한국고전번역원, 2009.

김오봉, 「백수 양응수의 독서론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김윤정, 「18세기 사복의 성격과 실제—양응수의 「축장일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3집, 한국국학진흥원, 2013.

(UCI : G704-001834.2013..23.005)

김윤정, 「백수 양응수의 「사례편람변의」 연구」, 『규장각』 제44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

(UCI : G704-SER000011460.2014..44.001)

박수밀, 「18세기 양응수의 독서법에 나타난 독서 양상과 그 의미」, 『국제어문』 42집, 국제어문학회, 2008.

(UCI : G704-000774.2008..42.017)

정 민, 『오직 독서뿐』, 김영사, 2013.

조성산, 「18세기 노론 지식인 양응수의 화담학 인식」, 『민족문화연구』 77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조성산, 「18세기 영·호남 유학의 학맥과 학풍」, 『국학연구』 9집, 한국국학진흥원, 2006.

| Abstract |

Baeksu(白水) Yang eung-soo(楊應秀)'s sense of value for life

- Focusing on his Hansi(漢詩)

Lee, Sang-bong

Pusan Univ. BK21 FOUR Post-Doc

Existing studies focused on Yang Eung-soo's reading method, the fact that he practiced mindfulness for one year to miss the deceased the death of his teacher, and the perception he had about the study of Hwadam(花潭). His reading method, the contents of the <Chukjang Diary(築場日記)> that he left behind, and his views on the study of Hwadam(flowers) can all be seen as a reflection of his perception of life and learning.

Therefore, in this paper, I looked at his ideological basis that made such a life possible, focusing on the hansi-korean poem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he left. Yang Eung-soo gave up the civil service exam at the young age of 24 and had a scholarly personality to devote himself to his studies, and this inclination remained intact in his few poems.

Among the themes of the poems he left behind, many sang about being faithful to the contents of the scriptures. In particular, he emphasized not only insisting on benevolence and justice with words, but also putting into practice the contents of the scriptures

such as 『Sohak(小學)』. In addition, he inherited the teachings of 『Seokyung(書經)』 and 『Book of Rites(禮記)』 that 'the sky is unselfish and fair' and expressed a free mind in his poems, free from greed for one's own destiny. And this mindset was developed into the content of 'Heaven and Man are originally one', which appears in 『Book of Change(易)』·『Book of Rites(禮記)』·『Book of Mind(心經)』 did.

Yang Eung-su thought that it was important to get rid of '人慾' from the human mind in order to achieve the teachings of '天無私' and '天人一也' in the scriptures. So even in his poems, he expressed that in order to realize that the human heart(人心) and the dao heart(道心) are not two, we need to get rid of greed.

However, it was not easy to achieve the state of the sage by making steady efforts. After immersing himself in Neo-Confucianism, he has cultivated and restrained himself for a long time, but there are still many things that need to be studied and practiced.

Therefore, in his later years, even if he could not completely get rid of his greed, he also wrote a poem that pays attention not to lose the original intention given by heaven. Not only in modern society but also in the 18th century, when Yang Eung-su was active, social success represented by rising in the world and gaining fame was what most scholars were aiming for.

However, Yang Eung-soo gave up such social achievements and jumped into the academic path of Neo-Confucianism, making it the most important goal of his life to achieve mental and physical trai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His attitude toward life is

reflected in his poems as well, so his poetry seems to leave a deep impression compared to the works of other ordinary poets.

Key words : Yang Eung-soo, hansil(漢詩, korean poem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 values, scriptures, practice, unselfishness, fairness